안동 太師廟 3위 태사공 춘향

초헌관에 尹正吉 안동부시장이 대행

▲ 태사묘 숭보당에서 집사자가 분정되고 있다.

3월 18일 화요일, 음력 2월 11일 중정일中丁日에 안동시 북문동에 소재한 태사묘太師廟에서 안동권씨의 시조 권태사공權太師公, 안동김씨의 시조 김태사공金太師公, 안동장씨의 시조 장태사공張太師公 3위의 무자년 봄 향사가 봉행되었다. 향사는 3월 17일 오후에 전석前夕 입재入齋하여 당일 오전 10시에 강당인 숭보당崇報堂에서 집사분정례執事分定禮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의 향사 수임首任인 초헌관初獻官에는 안동시장이 상규常規로 천망되어 있었으나 마침 이날 경북도청에 출장을 가게 되어 부득이 윤정길尹正吉 안동시부시장이 대행하게 되었다. 이날 분방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윤정길尹正吉(안동시 부시장)
아헌관 : 장태수張太守(태사묘 관리위원장)
종헌관 : 권덕연權德淵(태사묘관리위 부위원장)
진설 : 김욱년金旭年、권오수權五秀、장기호張基浩、권주연權宙衍、장상기張尙起、김영진金寧鎭
축祝 : 장후섭張厚燮、김진한金進漢、권오수權五壽
찬자贊者 : 권영근權寧槿
알자謁者 : 김시일金時鎰
찬인贊引 : 권승환權升煥、장수진張洙鎭
봉향 : 장태희張泰熙、김시현金時顯、권용주權容柱
봉로 : 김숙동金淑東、권인탑權仁塔、장인표張仁杓
봉작 : 권오석權五奭、장응섭張應燮、김재현金在顯
전작 : 장백룡張百龍、김주현金珠顯、권오규權五圭
사준 : 김창한金昌漢、권순갑權純甲、장영찬張永燦
척기 : 권기식權奇植、장승길張承吉、김철규金哲圭
장생 : 장원오張元五、김중동金重東、권오권權五權
공반 : 김영현金永顯、권기영權奇嶸、장기용張基鎔
학생 : 권종봉權宗鳳、장성렬張性烈、김문한金文漢

정관에 의거 아헌관은 장태수 태사묘관리위원장이 하고 종헌관은 부위원장 중 연장자인 권덕연씨가 맡아 하였다. 행례를 마치고 제사공사祭祀公事와 음복례飮福禮를 필한 다음에는 숭보당에서 관리위원회의 총회가 열렸다. 결산과 예산이 경과보고 뒤에 보고 되어 채택되고 현임원진의 임기만료로 차기 관리위원장은 안동장씨측에서, 사무장은 안동김씨측에서 맡아 새 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다. 그리고 차기 추향秋享의 도유사都有司 망기望記는 안동김씨의 김영동金永東씨에게 나갔다.

<사진 · 글 權升煥>

▲ 신문안 묘정에서 헌관 이하가 참신례를 행하고 있다.

하동 錦南祠 춘계 석채례

초헌관에 權寧偉 문충공종회장

▲ 뒤에서 본 경천묘와 금남사 전경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에 있는 신라 말왕 경순왕敬順王을 모시는 경천묘敬天廟 계하階下의 금남사錦南祠는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선생이 유일하게 원향院享된 곳이다. 이곳에서 음력 2월 중정일中丁日인 3월 18일 정사일丁巳日에 상향常享 석채례釋菜禮가 있었다. 경천묘의 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에 세이사歲二事를 올리고 있다.

금년 금남사 향례에서는 양촌선생의 안동권씨문충공종회 권중위權重偉 종회장이 그 초헌작初獻爵을 맡아 하였다. 충북 음성의 문충공종중에서는 권영위 종회장 이하 10여인이 승합차량으로 전일에 출발하여 금남사에 도착해 입재하였고 서울에서도 본사 취재차량으로 4인이 전일 오후에 출발하여 저녁 늦게 금남사에 도착해 입재하였다. 재숙 중에 서울 참제원을 만난 자리에서 권영위 문충공종회장은 근자에 경순왕 후손인 경주김씨 문중의 종산에 도로가 나게 되어 수용된 보상금이 60여억원이 나왔는데 그 경주김씨의 구파에서 이 경천묘와는 별도로 다른 곳에 경순왕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되는 것같았다.

경천묘는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의 진영眞影을 모신 사당이고 그 아래 금남사는 이 묘를 창건함에 유공한 목은牧隱 이색李穡、양촌 권근 사제 양선생에 경주김씨의 두문동杜門洞 72현의 1인인 수은樹隱 김충한金 漢 선생을 추배한 서원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후 양촌의 부친 정간공靖簡公 권희權僖 선생의 발의와, 목은 이색 선생과 태종의 스승으로 원주 치악산에 은둔하던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의 공론에 따라 양촌이 그 장자 총제공摠制公 권천權踐으로 하여금 원주에 경천묘를 창건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없어졌는데 이를 안타까이 여긴 하동에 거주하는 경순왕의 후손과 지방 유림이 1918년에 청암면 중이리 신기의 금남산 아래에 이를 옮겨다 중창하였다. 그러나 하동、사천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하동댐 건설로 이곳이 다시 수몰지역으로 들어가 1988년 11월 20일 지금의 장소로 옮겨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금남사의 석채례가 봉행되고 있다.

당일 금남사의 경모당景慕堂에서 신라기원 2065년 무자戊子 2월 11일의 금남사 춘향석채의春享釋菜儀의 집사방執事榜을 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헌자獻者 : 권영위權寧偉(안동권씨 문충공종회장)
헌자 : 김종석金鍾石(성균관 전의)
헌자 : 이선희李宣熙(청암면장)
집례 : 정용학鄭容鶴
축 : 장현무張玄武(성균관 전학)、권영준權榮俊、정연군鄭然君
진설 : 김재건金在乾
장의자掌儀者 : 손화범孫和範、이창규李昌奎(성균관 사예)、정경생鄭慶生(성균관 사예)
사준 : 여성조余聖祚(성균관 사예)
찬창贊唱 : 김현수金炫洙(성균관 사예)
제물유사 : 김규식金圭植(성균관 사예)
찬자 : 박영양朴迎陽(성균관 사예)
전작 : 하태현河泰炫(성균관 사예)
봉향 : 한충영韓忠榮(성균관 사예)
봉로 : 양운환梁雲煥(성균관 사예)
봉작 : 정재기鄭載基(성균관 사예)
배청杯廳 : 한정수韓正洙(성균관 사예)

<사진 · 글 權奇允>